

접착제, M&A로 “덩치 키우기”

수익성 압박 탈출위해 몸부림 … M&A 통해 사업다각화 추진

세계 접착제 시장에서 1999년 이후 통합으로 2개의 거대기업이 탄생했다.

Morton을 합병한 Rohm & Haas와 TotalFina 및 Elf Aquitaine이 접착제 사업을 통합하면서 생겨난 Bostik Findley이다.

Bostik Findley는 매출 10억달러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Henkel, 3M, Avery Dennison, H.B. Fuller, ICI의 National Starch & Chemical 등 다른 선두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거대기업들은 다른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접착제 시장에서의 위치를 최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Chem Quest Group은 매출 300억달러의 접착제 분야에서 최근에는 M&A가 둔화하고 있지만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ChemQuest에 따르면, 지난 몇년 동안 새로운 용도 개발로 덕분에 힘을 얻었던 의료용 접착제 시장은 미국에서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mQuest는 의료용 접착제 시장을 Transdermal 위생 반창고, 일회용 주사기, Tissue Bonding 3개 사업부로 분리했다. 의료용 접착제 시장 공급기업으로는 3M, Avery Dennison, Loctite, National Starch가 있다.

전자제품용 접착제 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6%로 전자제품 시장 성장률인 연평균 1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mQuest는 Epoxy 사용량이 자동차 계기반 뒤에 사용되는 전자제품 등 몇몇 주요 수요시장에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수요가 많은 전자제품 제조 계획이 해외로 이동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11/ 19 >